

종합

“100세 이상 노인 장수비결은 효도하는 며느리와 된장국”

전남도 197명 전원 조사

전남지역 100세 이상 노인들의 장수 비결은 건강한 가족애와 된장국 등 전통 음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15일 100세 이상 노인 197명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197명의 100세 이상 노인들의 대다수인 81.7%(161명)가 2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며느리와 생활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이 35%(69명)에 달했고 며느리·손주 등 3대(代)가 함께 사는 노인들도 적지 않았다.

가족이 개인의 생활 양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노년기 정신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가족들과 자주 접촉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장수 비율이 높다는 게 전남도측 분석이다.

장수 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국(56명·28.4%)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육류(39명·19.7%), 생선(22명·11.1%), 야채류, 김치 등으로 조사됐다. 된장·김치 등 발효 식품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고유의 전통 식단이 장수 식단으로 밝혀진 셈이다.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는다(25명·12.7%)는 노인들도 많았다.

또 100세 이상 노인들의 94.4%(186명)는 금연을, 88.3%(174명)가 금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수 노인이라고 모두 건강한 게 아니라 절반(55.3%·109명) 이상은 치매·관절염·고혈압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됐다. 그러나 독립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이 88명에 달했고 50명은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남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한편, 고령자들에 대한 부양비 및 장수수당, 이동원칙 등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

때를 착용하고, 안내데스크와 민원실 입구에 홍보용 배너를 설치해 공직자들의 청렴 마인드를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광주시는 역대 최고점수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청렴의 날’

광주시가 매달 15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광주시는 청렴의 날에는 청사 안내 및 자원봉사요원이 청렴 홍보용 어깨

광주 미분양 중대형도 취·등록세 감면

市 ‘조례 개정’ 추진 분양가 인하 유도

광주시가 지역 내 미분양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비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폭을 조정할 예정이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갖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인하

를 유도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모든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취득·등록세의 75%를 감면해줬으나 이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85㎡ 이상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업체가 분양가격을 인하하면 그 인하율에 따라 감면 비율이 정해질 예정이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초과

20% 이하인 경우 취득·등록세의 62.5%를, 분양가 인하율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등록세의 75%를 깎아준다라는 것이다.

다만 2010년 6월30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기존대로 모든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등록세의 75%가 적용된다. 또 개정안에는 지난 2008년 6월11

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취득·등록세 감면 규정이 오는 6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내년 4월30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적체 심각해 단기간 내에 해소 곤란해 미분양 아파트 대한 지원대책을 연장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현재 광주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5천304세대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1천886세대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버니 에클레스톤 포뮬러원 매니저먼트 회장이 15일 영암군 삼호읍 F1경주장 건설 현장을 찾아 박종영 전남도 F1대회 조직위원장과 함께 대회 준비 상황 및 공사 진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암 찾은 ‘F1의 대부’ 버니 에클레스톤 회장

“코리아 그랑프리 성공위해 뭐든지 전폭적 지원 하겠다”

‘F1의 대부’로 불리는 버니 에클레스톤 포뮬러원 매니저먼트(FOM) 회장(80)은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지원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15일 오후 영암군 삼호읍 F1경주장 건설 현장을 찾은 에클레스톤 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코리아 그랑프리가 올해 처음 열려 아직 인지도가 낮지만 2년 정도 지나면 전 세계인에게 강하게 인식될 것”이라며 성공 개최를 확신했다.

그는 이어 “F1경주장 건설이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돼 인상적이다”면서 최근 경주장 건설 차질로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기사로 완전한 난센스다”고 잘라 말했다.

에클레스톤 회장은 14일 서울에서 경제계 인사들과 만난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코리아 그랑프리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과 스폰서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후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 동석한 F1대회 운영법인 KAVO 정영조 대표도 “구체적 기업은 말할 수 없지만, 한국의 5대 기업 중 3곳의 오너를 만났고 금융권 관계자도 만났다”고 전해 국내 대기업의 스폰서십 참여 가능성을 내비쳤다.

에클레스톤 회장은 “현재 스폰서십에 참여한 LG가 적극적으로 코리아 그랑프리를 후원하고 있다”면서 “F1성공을 위해 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는 만큼 언론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틀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KAVO 정대표와 전용기편으로 중국 그랑프리가 열리는 상하이로 떠났다.

에클레스톤 회장은 F1의 상업적 성공을 이끈 인물로 개인 자산만 23억 파운드(약 4조원)에 이르고 2007년에는 영국 BBC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노인’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 농가소득 전국 꼴찌

수입농산물 급증·농자재값 인상 ‘이중고’

채산성 갈수록 악화 개선 대책 마련 절실

전남지역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수입 농산물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문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09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농가의 평균 소득은 2천521만원으로 전국 평균 3천81만원보다 560만원이나 적었다. 특히 2007년 2천754만원, 2008년 2천634만원으로 3년 연속 농가소득이 줄었다.

농가소득은 제주가 3천50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3천426만원, 강원 3천412만원, 충남 3천286만원 순으로 높았다. 전남지역 농가들의 소득이 전국 최하위에 머무른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비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으로

로, 전남의 경우 전체 18만1천 농가 가운데 9만6천가구(53%)가 비농사 소득을 주 소득으로 하고 있다. 이의 과수농가 8.8%(1만6천 가구), 축산농가 5.5%(1만1천 가구) 등이다.

그나마 비농사의 경우 농자재값은 매년 오르는 반면, 쌀값은 오히려 하락세여서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지출도 2천279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자산 역시 2억1천76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남지역 농가들의 평균부채는 1천992만원으로 전북(1천935만원)과 함께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한편 전국 농가의 평균 소득은 3천081만원으로 2008년보다 1% 늘었다. 또 농가자산은 3억5천803만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으며, 농가부채는 2,627만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이민기기자 emlee@kwangju.co.kr

기재부 1차관 임종룡씨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종룡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내정했다.

임 차관 내정자는 보성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거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1월부터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해왔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아시아-태평양(APEC) 정상회의의 연설 준비를 위한 회의 도중 ‘병상에 계신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았으나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가 부친의 입종을 놓친 일은 유명한 일화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또 한번 가슴이 미어진다

광주신문사 (Gwangju Shinmun)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and fax numbers.

광주지방법정 정황지원 (Gwangju District Court)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순천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변경 공고 (Suncheon City Urban Planning Facility (Sports Facility) Decision and Resident Explanation Meeting Change Announcement).

사원모집 (Staff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a company, listing various positions and benefits.

금산공인중개사 (Ginsan Certified Real Estate Agent)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agent.

아리울공인중개사 (Ariul Certified Real Estate Agent)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agent.

무인텔 매각공고 (Unmanned Tel Sale Announcement) advertisement for a business sale.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Hanabank Hanacapital Loan) advertisement for a loan service.